



중보기도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최근의 삶에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한계에 부딪혔던 적이 있나요? 그 상황에서 나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넘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What Makes Christianity Different?



Passage: Matthew 16:24 (ESV)

Date: February 1, 2026

Pastor: Dong Suk Chung

Judaism, Islam, and Christianity—known as the three major world religions—share the common belief in one God and trace their ancestry back to Abraham. Yet, the crucial point that distinguishes Christianity from the others is the confession concerning the true identity of Jesus Christ. Judaism and Islam insist that a human being can never become God and reject the divinity of Jesus. To them, God is only a fearful master in heaven, and human beings are merely servants who must keep His law through their actions.

But the truth of Christianity is different. Our God personally took on flesh and came into this world as Jesus Christ in order to bring about a new creation of the universe and of humanity. By shedding His blood on the cross, Jesus dealt with our sin; after rising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on the day of Pentecost, came to dwell within us through the Holy Spirit. God, who is now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was on the cross 2,000 years ago, and dwells within us today by His Spirit. The disciples realized this astonishing truth not through theological terms, but through real experience. This is the mystery of the Trinity in which we believe, and the very essence of the life found in Christianity.

In today's passage, Jesus says, "Whoever wants to follow me must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To "deny oneself" does not merely mean to give up desires. The corrupted man, who fell by eating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has absolutely no ability or power to keep God's law. Just as it is impossible for a cow to learn to read, the corrupted old self has absolutely no ability to follow the righteousness of Christ.

Jesus demands a righteousness that surpasses the law. He goes beyond the commandment "Do not commit adultery," teaching that even looking with lust in one's heart constitutes adultery. How can we possibly follow such a high standard? There is only one way: to hand over the old self to death. I must acknowledge that Jesus' death on the cross is my death, and give up my thoughts, judgments, and ego. When "I" (the old self) die, Jesus Christ who lives in me is revealed. As long as "I" am alive trying to do good works or striving to keep the law, the Holy Spirit cannot work. Therefore, the only thing the Lord requires

of us is "death and surrender."

The apostle Paul declared, "I die daily." This is the greatest glory of a believer's life and the secret to true blessing. We always carry the death of Jesus in our bodies so that the life of Jesus may also be revealed in our mortal flesh. When "I" die, death is at work within me, but as a result, life is at work in those around me—especially in my children. Rather than striving to teach morality and rules, when parents themselves die on the cross and manifest the Lord's peace and wisdom, a life-giving work takes place in their children. The Lord desires that we become "gloves". A glove has no power on its own, but when the "hand"—Jesus—enters into it, He is able to accomplish great things through it.

We are often deceived by Satan's lies. Satan points to our circumstances and illnesses and whispers, "This problem is your problem." He makes us believe that our sick appearance or our troubled family is our true reality. But a believer's true reality and identity is a "new creation" in Christ. The old self has already died on the cross.

Therefore, we must not judge according to our emotions or by what we see. We must think and speak according to God's Word. When our body is ill, instead of despairing and saying, "I am sick," we must declare, "With his wounds, we are healed." We do not make this declaration because the sickness has disappeared; even while the sickness remains, we confess with our mouths the victory Jesus has already won. This is what it means to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our minds. When we stand firm in our position and declare the Word, the Holy Spirit begins to manifest real and tangible power in our lives.

If our faith stops merely at "forgiveness of sins," it remains a servant's faith that worships God only from afar as an object of reverence. But the purpose of the incarnation and the cross is to make us children of God and the bride of Christ. The Lord has entered into an inseparable relationship of life with us—a union as intimate as that of husband and wife.

God desires that as we live in this world, we cast all our anxieties and worries upon the Lord and fully delight in Him who dwells within us. It does not matter if we have no worldly education or possessions. If only "I" die, Jesus—my Creator and Redeemer who lives in me—will be revealed and make all things new. May we truly realize the deep meaning of today's Scripture and live a life of faith that experiences and walks in that truth in our daily lives.

심나소식

나성교회



심성교회

2월 15일 2026년

NASUNGCHURCH.NET

94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날짜: 2월 1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세계 3대 종교라 불리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한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이들과 결정적으로 가르게 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사람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두려운 주인이요, 인간은 그분의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 하는 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인류를 새롭게 창조 하시기 위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신 후 승천 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2천 년 전 십자가 위에도 계셨으며, 지금은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신학적 용어 이전에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신비이며, 기독교가 가진 생명의 본질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나 힘이 아예 없습니다. 마치 소에게 글자를 가르칠 수 없듯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자아는 예수님의 의를 따를 능력이 전무합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높은 의를 요구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넘어,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죽음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인정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내가 살아서 선한 일을 하려 하거나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죽음'과 '포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성도 삶의 최고의 영광이자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그 결과로 내 주변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덕과 규범을 가르치려 애쓰기보다, 부모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님의 평강과 지혜를 나타낼 때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장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장갑 자체는 아무 힘이 없지만, 그 속에 '손'인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사탄은 우리의 환경과 질병을 보여 주며 "이 문제가 바로 너의 문제다" 라고 속삭입니다. 병든 내 모습, 문제투성이인 내 감정이 마치 나의 실상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의 참된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나는 병들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병이 없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과정입니다. 내가 내 위치를 지키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은 비로소 우리 삶에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죄 사함’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서 경배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종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육신과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는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며 겪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기만 하면, 내 안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실제로 듣고, 삶에 옮겨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소식

•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선교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펜데믹으로 중단되었던 한국학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려 합니다. 한국 학교에 자녀, 손주등을 보내기 원하시는 교우들께서는 방명석 형제님과 홍성훈 형제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 영어부에서는 캄보디아에 선교지원 기금 조성을 위해서 2월 28일(토)에 Garage Sale을 준비중입니다. 혹시 가정에 있는 물품중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교회에 Donation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일 예배에 새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Lobby 옆 새가족실에서 함께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와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양희 집사 86세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희순 집사 어깨 수술 (오른쪽 회전근개파열) 후 재활치료 중인데 왼쪽 어깨와 팔목 통증이 심합니다. 재활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희정 집사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 82세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오중 집사 47세

척수증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현주 집사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무릎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오른쪽 어깨 탈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영강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연경 형제 베드로선교회 방광암 치료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기도 부탁드립니다.
- 고원창 집사 여호수아회 항암 치료중에 stroke으로 인한 치료 후 재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묘자 권사 모세회 천식으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